

BK21플러스 평가기준에 대하여

선진화된 대학원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순서

- BK 사업의 조명
 - 1단계/ 2단계
- BK 플러스 사업의 방향
- BK 플러스 사업 정책에 대한 제언

BK 사업의 개요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
 -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
 - 석·박사과정 및 신진연구인력 집중지원
-
- 1단계(1999~2005) : 1조 3천억원
 - 2단계(2006~2012) : 1조 8천억원

1단계(1999~2005)

- 우수한 교육 · 연구 집단에 우수한 석 · 박사 학생 배치 (집중화)
- 고등인력 양성 체제 구축
- 대학원 교육 정상화와 안정된 교육 · 연구 여건 조성
- 대학정원 감축, 문호개방, 연구경쟁 분위기 조성

2단계(2006~2012)

- 1단계 사업성과를 토대로 연구중심대학 체제의 안정적 정착 가속화
- 우수한 교육·연구 집단에 우수한 석·박사 학생 배치 (집중화)
- 탈락·재진입의 경쟁적 인력 양성 체제 구축
- 대학원 특성화 촉진과 경쟁적 연구 분위기 조성
- 평가관리체계 혁신, 선택과 집중 원칙
- 산학협력, 국제화 및 국가균형 발전 중시

BK 플러스 사업의 방향의 특성

- 연구경쟁력 확보 방안
 - 질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학문분야별, 사업유형별로 지원방식
 - 지원내용 차별화로 독창성·창의성 유도
 - 소규모 사업팀에 대한 지원 확대
- 제도개선
 - 소프트웨어 중심 제도개선 유도
 - 연구중심대학체제 재정비

BK21 플러스사업('13~'19) 추진목표

-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 QS 대학평가 200위권내 대학 수 : 6개('12) → 11개('19)
- 학문분야별 핵심 고급인력 및 융복합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
 - 7년간('13 ~ '19) 매년 우수 석박사 인력 약 15,000명 및 신진연구인력 지원
- 국내 대학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 SCI급 논문 피인용지수 순위 : 30위('11) → 20위('19)

현재 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현황

구분	주요 평가 항목	글로벌 인재양성형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사업단	사업팀
교육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대학원생 취업 및 진로 현황 ▪대학원생 연구실적 ▪교육의 국제화 	23%	43%	45%
연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참여교수 연구실적 ▪산학협력 실적(과기분야) 	32%	42%	45%
제도개선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차원의 교육·연구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사업단 지원 계획 	15%	15%	10%

정책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들

- 현재 시행 중인 평가기준으로 교육과 연구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 평가 기준에 교육부와 미래부가 지원 사업의 정책적 차이점이 드러나 있는가?
- 현재 평가 시스템으로 사업단에 대한 학교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BK 플러스 사업의 정책 제안

- 사업단의 규모
- 학생 및 교수의 역량평가
 - 학교의 제도 개선

(1) 사업단의 규모

구분	사업단										사업팀 (소형)	
	과학기술분야								인문 사회 분야	융복합 분야***		
	기초	응용										기타 중점 분야
		정보 기술	기계	응용 생명	건설	화공	재료	의.치의. 한의학**				
교수 수 (명)	10	25 (15)*	15			10		20 (한의학 15 치의학 10)	10	7	10 (7)	3

- 학과 교수의 일부만이 참여하는 형태는 프로젝트 형식이 강함
- 참여 교수 수를 조정함으로써 오히려 대학원의 규모 축소를 유도한 결과가 되었음

(1) 사업단의 규모

-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대학원 학과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사업단/사업팀, 글로벌 인재양성형 구분의 지양
 - 학과 단위 사업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 지향
 - 학과 소속의 모든 교수가 참여하는 형태
 - 각 학교의 현실에 맞는 학과 규모의 실현과 이에 따른 경쟁력 확보 유도
- 제안
 - 학과 교수와 학생 수에 따라 사업단의 규모를 조정
 - 대규모 사업단, 중규모 사업단, 소규모 사업단 등으로 분류
 - 교육부는 사업단의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 실시
 - 각 학교는 학교 특성에 맞는 학과를 운영하여 경쟁력을 확보

(2) 학생 및 교수의 역량 평가

- 지표도입 효과
 - 논문 1개 당 100% 로 환산
 - SCI 지표를 이용한 환산/ Eigenfactor score 고려
- 문제점
 - 공동연구의 중요도가 배제되어있다.
 - 국내외 특정평가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다
- 제안
 - 공동연구의 일정 가중치 도입이 필요
 - 세계적 역량을 가진 주요 논문의 양과 질 관리 필요



<http://www.leidenranking.com/ranking>

순위	대학	상위 10%	09-12 논문수
1	록펠러	29.1	1033
2	MIT	25.2	9149
3	하버드	23.0	29693
4	UC-버클리	22.5	11384
5	스탠포드	22.3	13399
6	칼텍	22.2	5072
7	프린스턴	21.9	5017
8	UC-산타바 바라	21.2	4246
9	UC-샌프란 시스코	20.2	9990
10	예일	20	9775

순위	대학	상위 10%	09-12 논문수
173	포스텍	11.9	2959
283	KAIST	10.3	4791
306	이화여대	10.1	1661
456	GIST	8.3	1372
520	서울대	7.4	12114
569	성균관대	6.9	5175
571	울산대	6.8	2790
580	연세대	6.7	7598
600	경상대	6.4	1496
610	부경대	6.3	1039
616	인하대	6.2	2414
619	고려대	6.1	5446

(3) 학교의 제도 개선

- 학교의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이 반영됨
- 문제점
 - 백화점식 평가
 - 규모와 특성에 따른 학교와 학과의 특성화 반영이 미흡
- 제안
 -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유도하도록
 - 학교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제도와 사업단이 속한 영역 또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제도의 사항을 별개의 가중치로 반영 시킬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